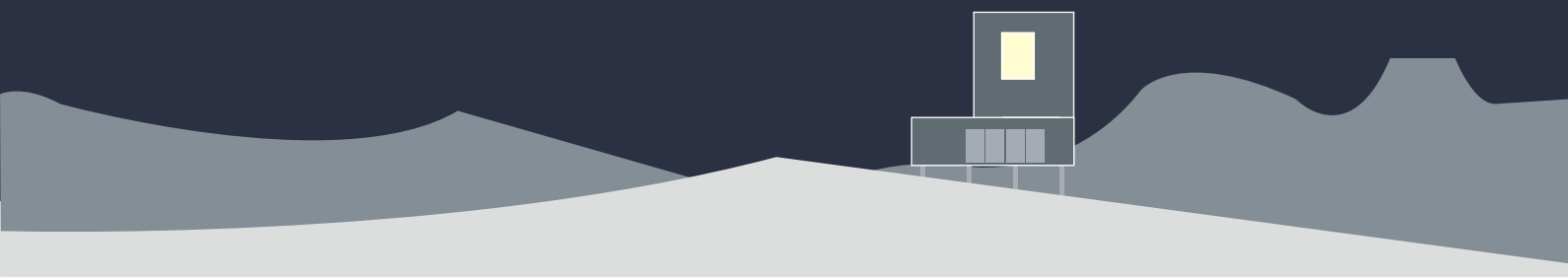
VALUE INVEST KOREA

2018년 06월 셋째주



가드넥

인우산업

페라리스파워

eWBM

선재하이테크

가드넥 사업 현황

■ 가드넥 재무지표
- 매출액 : FY2017 31,115,000,000 / FY2016 34,684,000,000 (전년대비 10%감소)
- 영업이익 : FY2017 -1,852,000,000 / FY2016 5,620,000,000
- 당기순익 : FY2017 -2,010,000,000 / FY2016 4,334,000,000

■ 이슈
- 탄소소재(그라파이트)기반의 전자기기 방열기능 극대화
- 배터리, 연료전지 효율을 개박하는 소재개발
- 방열사업부문 : S사의 매출 약 300억 예상, L사 일부모델 납품 시작
- 그라파이트 소재 매출 비중 높일 예정 (이유 : 방열소재 제품 판매단가 증가)
- 모바일에 집중된 방열필름사업을 전기장치, 반도체, 대형OLED로 다변화할 계획
- 현재 H자동차의 모든 수소차에 동사의 제품 채택
- 일본 국제수소 연료전지 전시회 참관하여 제품전시 → 관련업체로부터 많은 주목

참고 : 2017 annual review

인우산업 사업현황

■ 사업운영 현황

▶ (주)진에너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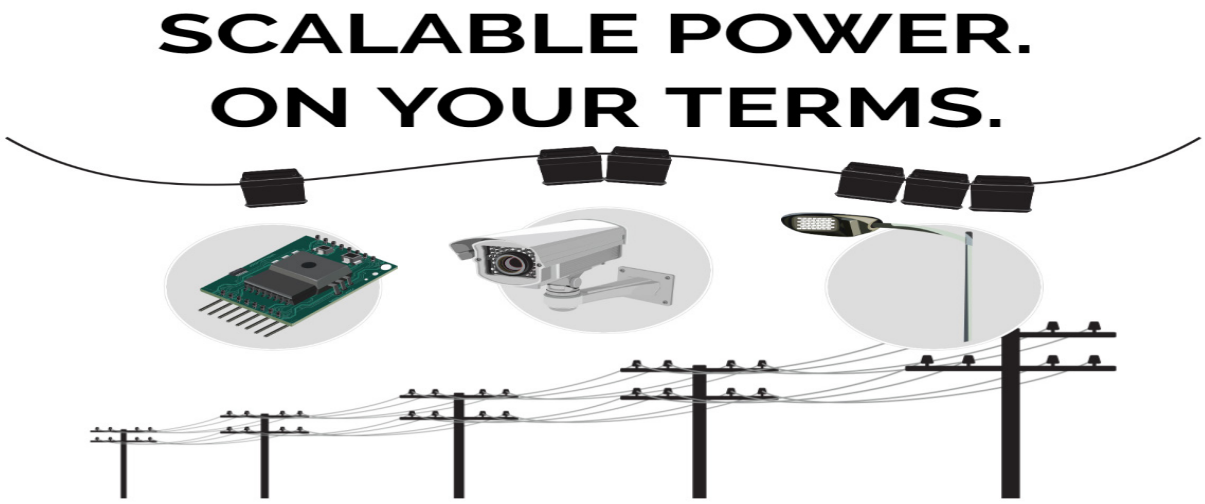
- 인우산업 100% 자회사
- 매출액 : 2,379,000,000
- 영업이익 : 293,000,000
- 당기순익 : 151,000,000
- 2017년부터 한국중부발전소에 납품
- 추가 투자로 설비 증설 완료
- 현재 연간 6만톤 납품 준비 중

▶ 인우산업 재무지표

- 매출액 : 606,000,000
- 영업이익 : -41,000,000
- 당기순익 : 307,000,000

■ 이슈

- 2017년부터 하수슬러지 연료탄 매출발생으로 흑자구조 전환 및 손익분기점 초과 달성
- 환경부 주관 133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가과제를 수주하여 진행 중
- 국내 다수 화력발전소의 수입 우드 펠릿을 전량 납품 대체 할 계약을 협의 중
- 연료탄 가격 기존단가의 50%인상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 30%인상 기대
  (2018년 시행되는 신재생 에너지 REC 가중치 전면 개정)



페라리스파워 사업현황

■ 페라리스파워 재무지표
- 매출액 : FY2017 185,000,000 / FY2016 66,000,000
- 영업이익 : FY2017 -3,170,000,000 / FY2016 2,682,000,000
- 당기순익 : FY2017 -2,523,000,000 / FY2016 2,458,000,000

■ 이슈
- 2018년 한국전력 인천본부와 고출력 독립전원 개발과제 마무리
  → 전국 순차 확대 예상
- 본격적 양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전 공장부지 확보 및 관련설비구축 진행 중
- 미국법인 세팅 및 UL인증, 미국 내 파트너와의 협업 진행 중
-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전원공급솔루션 사업, 센서 동작용 자가 전원장치 개발 사업 등 활발히 진행 중
- LA수도전력국이 페라리스파워의 제품 성능테스트 진행
  → 테스트통과시 미국전력연구소 White paper 기재 및 Utility사 추천을 전제로 샘플제품 테스트 중
- 환경부와 에너지연구소로부터 소형 무선충전시스템 개발 정부과제 요청에 대한 내부 검토 후 착수 여부 결정할 계획

참고 : 2017 annual review

이더블유비엠 사업현황

■ 이더블유비엠
- 매출액 : FY2017 208,000,000 / FY2016 44,000,000
- 영업이익 : FY2017 -3,1163,000,000 / FY2016 -2,367,000,000
- 당기순익 : FY2017 -5,948,000,000 / FY2016 -5,976,000,000

■ 이슈
- 보안칩 MS500 탑재된 LoRa모듈 출시
  → 연간 최소 물량 협의 중
- LoRa망을 활용한 중국향 가로등 제어 시스템 사업에 선정되어 초도물량 납품
- 중국 합작회사를 통해 중국향 LoRa모듈 개발중
-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활발한 협의 진행 중
  → 대전광역시 수도 AMI 디바이스 구축 시범사업, 국내 화재경보기 시범사업
 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사업, 미세먼지 모니터링 사업 등 구체적 사업일정 협의 중
- 라온시큐어와의 납품 계약 완료 후 초도물량 공급
  → 국내 그룹사 사내용, 지문인식 PC 및 PC 액세서리 개발동 초도물량 납품
- Fido 2.0 B2C 사업 착수
- Fido UAF Dongle의 아르헨티나 수출 → 남비 IoT보안시장으로 확대 추진 중
- 영상 암호화시스템 개발 → KT, S발전소, 일본 파나소닉, 중국 연통 등과 사업 전개
- 3D 뎁스 이미지 센서 DR1152칩 출시 → 미국 IT대기업 샘플테스트 통과를 위한 개발 중

참고 : 2017 annual review

선재하이테크 사업현황

■ 선재하이테크 재무지표
- 매출액 : FY2017 27,388,000,000 / FY2016 20,393,000,000 (전년대비 34% 증가)
- 영업이익 : FY2017 1,638,000,000 / FY2016 743,,000,000
- 당기순익 : FY2017 800,000,000 / FY2016 1,106,000,000

■ 이슈
- 2017 상반기 대한민국 특허 대상 /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선정
  부산시 주관 전략산업선도기업 융합부품소재산업부분 1위 선정
- 매출의 60%가 국내 비중이 크지만 최근 유럽, 미국 등에서 제품문의
  → 해외 우수인력 확보와 네트워크 형형으로 적극적 마케팅 진행
- 2018년 X-ray신제품 개발
- 중국, 대만, 일본 등 아시아 외에도 미주 및 유럽까지 경쟁우위 선점 목표
- 2018년 1분기 해외프로젝트로 인한 45억원 가량의 매출 달성
- 2018년 신사업 성과와 이익률을 고려하여 IPO 재추진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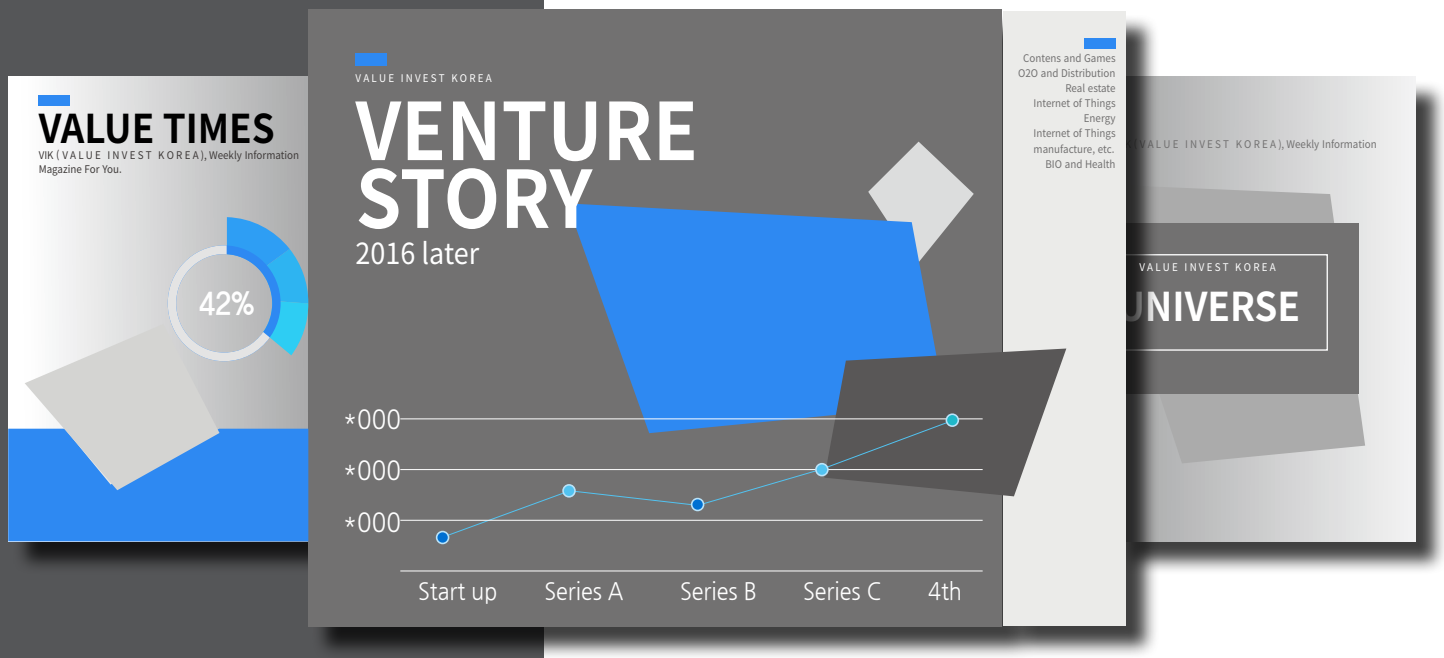
참고 : 2017 annual review

양수도

VALUE INVEST KOREA

VENTURE STORY

제48회 2018.06.20



● 콘텐츠 큐레이션 시대를 여는 '커넥터들의 힘'

콘텐츠 큐레이션

Content Curation

매우 다양한 정보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특정한 주제나 관심사에 따라 수집하고 분류하며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.

- 〈헤이우드 힐〉
  연매출 100만파운드(약 14억원).
  헤이우드 힐만의 '큐레이션'. 1년에 10여 권의 책을 골라 고객들에게 배송해준다. 주문은 세계 60여 개국에서 밀려든다 유명 부호들은 아예 서재를 통째로 맡긴다.
 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,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헤이우드 힐의 단골이었다.
  81년의 전통과 수많은 명사의 이름. 헤이우드 힐을 큐레이션의 상징으로 밀어 올린 두 기둥이다. 이 서점은 '콘텐츠 큐레이션'의 힘과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.
- 최근 콘텐츠 큐레이션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.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근저의 힘은 사회적 증거다.
- '큐레이션 시대'의 주인공은 사회적 증거라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. '커넥터(connector·전파자)'라고 부를 만한 이들이다.각 분야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해당한다.
- 커넥터의 선택 그 자체가 콘텐츠에 가치를 부여한다. "당신의 시간을 이 작품에 써도 좋습니다"라는 보증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사소하게 보였고 흘려보낼 뻔한 콘텐츠에 사람들은 눈길을 준다.
- 앞으로 우리는 더욱 압축적이고 집중적인 큐레이션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.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.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서 선택받는 단 하나의 콘텐츠가 되기 위한 경쟁은 이제부터 진짜가 아닐까.
  '콘텐츠 위에 큐레이션'이란 말이 현실화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.